

3월 4주차 Q&A — 원화 가치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달러 투자법

· 정리 2026-05-22

3월 4주차 Q&A — 원화 가치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달러 투자법

Part 3-3강(2026-03-20) 직후 Q&A.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.

- **질문 1 (산책하는 유령님)** — 새 정부가 재정 확대·부동산→주식 전환·새만금 데이터센터 등 노력하면 원화 강세로 갈 수 있나? 정치 배제하고 냉정 분석 요청 - **질문 2 (범고래74님)** — 달러 매수·보관·재환전 실전 가이드 (초보자)

강사는 정치적 중립을 명시 — 지난 정권·현 정권 모두 100조원대 적자, 결과는 똑같다는 점을 짚는다.

새 정부 정책의 환율 영향 — 5 갈래 분석

① 조선·방산·원자력 해외 수출 — 원화 강세 핵심

가장 확실한 원화 강세 효과.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옴. 다만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꿀 만큼 강력하냐는 의심의 여지. 핵심인 건 맞고 이게 잘 돼야 한다.

② K컬처·관광 내수 활성화 — 규모 작음

GDP 대비 규모가 작아 원화 약세를 막을 정도는 아님.

③ 부동산 → 주식 자금 이동 — 장기 OK, 단기 불리

방향 자체는 맞음. 부동산은 시멘트에 돈 박기 — 수출도 못 함. 주식이 성장 동력. 그러나 한국에 1,000~1,500조 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있고, 부동산은 외인 보유 적어 갑자기 못 팔지만 **주식은 팔기 쉽다**.

외국인 입장 — 코스피 2,000에 갇혀 있다가 6,300까지 3배. 하이닉스·삼성전자는 7~8배. 한국 투자 쓴맛 본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면? 매도. 수개월 동안 원화 약세 가중. 5~10년 신뢰가 쌓여야 진짜 원화 지지력 생김.

④ 재정 확대 (경기 부양) — 단기 지지, 장기 약세

단기: 성장을 방어 → 일시적 원화 지지. 장기: 국가 채무 ↑ → 재정 신인도 압박 → 원화 약세 가속. 인구 구조가 문제다 — 10년 뒤 국채를 갚을 청년 세대가 절반밖에 안 됨 (강사 본인 세대 105만 / 딸 세대 60만).

⑤ 새만금 데이터센터 / AI 인프라 — 5년 영향 미미

달러 버는 구조가 아닌 **내수 인프라** + 엔비디아 칩셋 매입은 달러 사용. 미국이 우리보다 10 곱음, 중국 3 곱음 앞. AI는 승자 독식 — 한국이 적당히 잘해서는 외화 못 벌어들.

원화 구조적 약세 — 4 원인

정체 성과와 무관하게 4 구조가 원화 약세 방향을 결정한다. 일본도 못 피했다 — 2012년 1\$=75엔 → 2024년 160엔. 12년에 2배. 한국에 대입하면 1,500원이 3,000원 되는 셈.

원인 1 — 인구 구조 (이미 확정된 미래)

- 생산 가능 인구 감소 → 잠재 성장을 하락 → 외국 자본 유입 감소 - 복지 지출 증가 → 재정 적자 구조화 - 65세 이상 병원 지출 4배 / 기초 연금 따따빠

원화 신인도 하락 — "한국에서 돈 굴려봤자 성장 없는데 외국 자본 올 이유가 없다"

인도 사례 — 자국 중심주의지만 내수 시장 크기 때문에 외인 투자 몰림. 한국은 정반대 — 인구 ↓ → 외인 투자 감소.

원인 2 — 반도체 환율 괴리

옛날(2010년까지) 수출 기업이 달러를 전액 원화로 환전. 지금은 한국에 공장 안 짓고 **해외 법인에 달러 유보**. 트럼프 겁박으로 3,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 — 더 큰 문제.

HBM도 ASML 노광기·일본 소재를 달러로 사옴. **수출 호황만큼 수입도 증가**. 서비스 수치(여행·지적 재산권료·운송) 만성 적자가 경상 수치 잡아먹음.

반도체 슈퍼사이클 + 울트라가 빠지면 원화 더 약세. 글로벌 질서 자체가 바뀌어 (미·EU 자국 공장 요구) 옛날 가공 무역 시대로 못 돌아감.

원인 3 — 국민연금 구조적 달러 매수

기금 1,100조원 — 해외 자산 비중 약 60%, 2030 65% 목표. 매년 수십조의 해외 자산 매수. **경기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달러 산다**.

국민연금이 한국 주식·채권만 사면 6~7년은 코스피 1만~1만 5천 가능. 그러나 6~7년 뒤(국민연금 발표 12년 뒤지만 강사는 6~7년) 지출 > 수입. 자기가 산 걸 또 사기 때문에 평가 수익 — 팔기 시작하면 자산 폭락.

환헤지 강요 시각 — 강사는 반대. 강조 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전략적 환헤지 강요가 현 정부도 그대로 유지. **환헤지 비용은 달마다·해마다 나가 국민연금 수익률 직격탄** → 우리 노후 자산 ↓. 강사 시각 — 최대 20% 이상 X.

원인 4 — 달러 스마일

시나리오	달러
미국 경기 호황	강세 (자금 미국 몰림)
글로벌 경제 위기	강세 (이란 전쟁 시 달러 확보)
미국 경기 침체 + 연준 양적완화	약세

호황이든 위기든 달러 강세 — 원화는 어떤 상황에도 불리한 구조.

한국은행 통화량 — 단기 원인 추가

2022~2026 한국 M2 통화량 21% ↑ (한국은행 통계 기준 변경 후 14%). 미국 4%. 강사 비판 — **2021년까지 한국 성장률이 미국 2배라 빠른 통화 증가 OK, 2022년부터 한국 성장률이 미국 절반인데 3배 빠르게 찍었다**. 원화 가치 녹는 단기 원인. "1,300원 후반이 됐을 환율이 1,500원" 정도 영향.

달러 어떻게 사나 — 자동 환전

증권사 앱 → 환전 → 해외주식 계좌 이체. 매일 일정 금액 자동 이체로 감정 개입 차단.

- 환전 우대 이벤트 — 정부 환율 관리 목적 현재 우대 중단 중. 재개 시 반드시 신청 (수수료 90% 감면 = 거의 무료) - 토스 증권 등 대안 환전 통장

강사 환전 규칙 진화

시기	규칙	결과
~2019년	3년 평균 환율 이하만 환전	백전백승
최근	1년 평균 이하	어려움
지금	자동 환전	환율 기초적 상승 — 폐기

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3년 평균 이하 기다리면 영원히 환전 못 함. **자동 환전 + 특정 환율(1,480원이든 1,520원이든) 이하 시 3배 환전** 같은 시스템 권장.

매수한 달러 보관 — 3 단계

1 단계 안정형 (초보자 추천)

- **외화 RP** — 3~5% (특판 시 4.5%+). 만기 정해진 / 수시 입출금 모두 - **은행 달러 정기예금** — 연 3.0~3.1%. 예금자 보호 1억 (2024 변경). 해지 시 불이익

2 단계 중간형 (조금 더 유연하게)

- **TIGER 미국달러 SOFR 금리 액티브 ETF / SGOV** 등 미국 ETF - 연 3.5~4%. 언제든 팔아 환전 가능 - 강사는 SGOV 선호 (수수료 ↓, 단기채라 금리 ↑ 여도 자본 손실 X) - **TLT 비추천** — 장기채라 금리 ↑ 시 자본 손실

3 단계 공격형 (어느 정도 모으신 분)

- 미국 ETF — 전설의 **QQQ, SPY - TQQQ·ARK 비추천** — 액티브는 패시브를 못 이김. TQQQ 장기 보유 시 손해. 액티브가 패시브 이길 때는 대세 상승기뿐, 끝나면 참패 - 이자 + 배당 + 환차익 3박자

실물 달러 현금 보관 X — 금리 비용 + 도난 위험 + 이자 0%. 통장·ETF 압도적 유리.

QQQ 시점 — 미국 증시 4년마다 20% 하락, 8~9년마다 30% 하락. **지금은 모두가 광분한 시대 → 적립식 OK, 비명 소리 시 목돈**. "모두가 환멸 느낄 때 전 재산 박기"가 승리 방법.

원화로 재환전은 언제 — 보험 결

원칙: 계속 모아간다.

재환전 시점: - **큰 지출 발생** — 집·결혼·다른 투자 - **달러 강세 극단 과열** — 강사 본인 사례: KRX 금 시장이 국제 가격보다 30% 비싸졌을 때 금을 팔았다가 다시 산 적 있음 (작년 초) - **자산 리밸런싱 - 외환 위기급 극단** — 1\$=800원 → 2,000원 2.5배 같은 변화

"환율이 올랐을 때 샀다가 내리면 어떻게 하죠?" — 이 질문 자체가 달러를 단기 투기로 보는 시각.

> **달러 자산은 원화 집중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거든요. 보험료를 비쌀 때 조금 들었다고 해서 해약하지는 않잖아요**.

원화 약세는 기조적 흐름. 한 번 오르고 한국은행 개입으로 내리고 다시 오르고의 계단식. 깜짝 놀라서 살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환전 + 왕창 올랐을 때 잠시 멈추는 방식 권장.

일본 4조 달러 대외 자산 사례

일본이 30년 넘는 불황에도 멸절한 이유 — **4조 달러 (약 6,000조원) 대외 자산**, 특히 달러 자산이 진짜 많기 때문. 일본을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.

> 개인이 이렇게 달러 투자하는 게 나중에 10년·20년 뒤 한국이 일본 같은 문제를 겪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다. 우리가 대외 자산 많이 갖고 있어야 일본처럼 튼튼한 나라로 살아남는다.

마무리 — 객관적 시각 + 응원

강사 본인은 한국 정책이 모두 성공해 이노베이션 새 장으로 바뀌어 원화 가치가 지속 상승하길 응원·지원한다. 다만 객관적으로 봐야 — 뿌리째 모든 게 바뀌어야 하는 변화는 아직 안 생겼다. 환율 4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는 원화 약세는 구조적이다.

개인이 달러를 모아두는 것이 곧 한국 외환 보유고만큼 든든한 보험 — 일본 평행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비해야 한다.

ONE LINE

달러 자산은 원화 집중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다. 보험료를 비쌀 때 조금 들었다고 해서 해약하지는 않는다.

출처
박종훈의 지식한방 — Q&A 3월 4주차 (2026-03-23, parent: Part 3-3강).